

휠체어 타고도 편안해진 양림동 관광

무장애 '남구 BF여행' 개발 여행지도·위험 알람 등 서비스 문화해설사 예약 안내도 가능

“위험지역 10m 이내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쉽게 꿈꾸지 못한다. 집 주변을 한 번 돌아보고 싶어도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의 정보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내고, 광주 도심 중 일부를 편하고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앱 하나면 휠체어를 타고 문화해설사와 함께 손쉽게 호남 근대역사1번지 광주시 양림동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남구 BF여행' 앱이 개발된 것이다.

6일 남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장애 남구 사업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남구는 이날 BF(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여행앱 개발사로부터 앱 관리와 이관 받아 본격적인 앱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 1억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등 2억원을 들여 앱 제작을 발주했다. 앱 이름인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구 BF여행' 앱은 무장애 여행지도 서비스(장애인 이용시설, 접근경로, 위험지역), 테마별 여행프로그램, 방문자 예약 및 안내자 매칭 서비스, 양림동 내 장애인 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앱은 양림동의 장애인 이동경로 정보를 수록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이용하기 쉬운 장애물 지역은 빨간색, 반대로 통

행이 편한 곳은 초록색으로 표시했다. 지도에 표기된 세부정보를 통해 음식점과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충전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도 표기했다.

또 이동경로에 따라 위험지역에 진입하기 전 앱 알람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알리는 기능도 담고 있다.

남구 BF 여행 앱은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부터 유모차를 끄는 노약자, 일반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남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앱 개발에 앞서 지역 장애인 단체인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양림동 일대의 장애인 접근경로와 위험지역 20곳 및 안내자 매칭 서비스, 양림동 내 장애인 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앱은 양림동의 장애인 이동경로 정보를 수록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이용하기 쉬운 장애물 지역은 빨간색, 반대로 통

간과 장소에서 만나 직접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보다 반걸음 앞서 걷고 설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반걸음 앞선 해설사'로 이름이 붙여진 이들은 1시간여 동안 양림동 구석구석을 소개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난해 양림동 역사마을 테마 여행 가이드 양성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도 보조해설사로 참여한다.

'남구 BF 여행'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설치 후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의 SNS 아이디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개선 사항을 꾸준히 체크해 장애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데이트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구는 물론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5·18기념재단·복원 추진단 원형 보존 자료 확보 등 협력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보전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6일 '이날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옛 전남도청의 성공적 복원과 5·18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복원 추진단은 복원에 관련된 사진·영상·문헌 등을 같이 공유해 옛 전남도청 복원작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5·18 전사·홍보 등 '5·18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시 기초연구 등을 위한 각종 자료를 상호 활용 및 공유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지난해 연말 복원 추진단이 기념재단에 복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기념재단측이 제안해 맺어졌다. 협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복원추진 운영 종료시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모아진 자료를 토대로 설계기간은 2020년 9월 25일까지이며, 이후 복원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복원 추진단에 따르면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전남도경찰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관 내외부와 연결 통로 등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한' 추위 대신 겨울비 따뜻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소한(小寒) 6일 오후 비가 내리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대 키위수출연구사업단, 제주산 키위 국제인증 획득

전남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제주산 키위에 대해 국제인증을 획득토록 해 일본으로의 수출 길을 확대하게 됐다.

'글로벌 G.A.P' 국제인증은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 채소류의 생산기준을 세우기 위해 개발된 최고의 과학적 인증제도이다.

전남대 키위수출연구사업단은 제주시 농협과 한라골드영농조합 내 18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개월간 종합양분관리, 병해충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그리고

HACCP기준에 준하는 과원 및 선과장 관리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키위수출연구사업단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5년동안 23억원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키위의 수출전략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제주산 키위에 이어, 올해는 보성지역 키위에 대해서도 수출전략기술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 해질 17:35 | 달뜨기 14:39 | 달질 03:53

우산 챙기세요
저기압 영향으로 비 내리겠다.

광주	비	10/15	보성	비	7/14
목포	비	10/15	순천	비	8/14
여수	비	8/14	영광	비	11/14
나주	비	10/15	진도	비	11/17
완도	비	11/15	전주	비	8/16
구례	비	7/14	군산	비	7/14
강진	비	9/15	남원	비	3/15
해남	비	10/16	흑산도	비	9/15
장성	비	9/1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1.0~3.0
	면바다(북)	북~북동	1.5~2.5	북~북동	2.0~4.0
	면바다(남)	남~남서	1.0~2.5	남~남서	2.0~4.0
남해서부	안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1.0~3.0
	면바다(서)	남~남서	1.5~2.5	남~남서	2.0~4.0
	면바다(동)	남~남서	1.5~2.5	남~남서	2.0~4.0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25	11:32
	17:18	23:29
여수	00:12	06:51
	12:54	18:52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5/6	1/7	-1/8	1/8	0/6	-1/6	-2/6

비 온후 기온 뚝...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80mm 이상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밤부터는 찬 공기의 강도가 강할 경우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밤부터 8일 아침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해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8일 밤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80

mm 수준이다.

8일 새벽 무등산과 지리산 등 일부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8일까지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짧고, 찬 공기가 유입되는 7일과 8일에는 비로 인해 도로 위 얇은 얼음층인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다"며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교복 버리지 말고 후배들에 기증하세요

광주 남구 수집 나서

광주시 남구가 중·고등학교 졸업 및 입학 시즌을 앞두고 관내 일선 학교와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수집에 나섰다.

학교졸업생 교복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입지 않은 교복을 기증받는다. 교복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3층 교육지원과에 기증하면 된다. 훼손이 심

한 교복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복 수집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기증을 통해 모아진 교복은 세탁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 열리는 '2020년 교복 나눔의 날' 행사에서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저렴한 가격(1000~5000원)에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재)남구장학회에 전액 기부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